

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동의안

검 토 보 고

1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896호
- 나. 제 안 자 : 서울특별시장
- 다. 제안일자 : 2023년 5월 30일
- 라. 회부일자 : 2023년 6월 1일

2. 제안이유

- 가. 서울시는 문화 예술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을 설립하고 법인의 운영 및 시설관리, 공연예술 등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있음.
- 나. 2023회계연도 추경예산 편성에 앞서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의 추가 출연 여부에 대해 동의를 얻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사업개요
 - 1) 사무명 : 세종문화회관 출연금
 - 2) 추진근거
 -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 -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·운영 조례
 - 3) 사무내용
 - 세종문화회관의 운영

- 공연예술진흥 및 작품전시 활동과 그 보급
-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·관리, 보급 및 조사·연구
-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
- 그 밖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-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위탁하는 사업

나. 추경개요

1) 추경예산 : 160,300천원

※ 총 출연금액 41,427,808천원(기 출연금 41,267,508천원)으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

2) 출연금 편성 내용

- 천원의 행복 : 121,000천원
- 예술로 동행 : 39,300천원

3) 추경필요성

- 천원의 행복
 - 천만시민 문화충전 프로젝트로 서울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대형 공연장 공연 확대 추진
 -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한 사전 공연 준비 등 필요
- 예술로 동행
 - 세종문화회관의 연례 계속사업으로, 자치구와 협력하여 문화예술 콘텐츠를 활성화시켜 사회적 약자 및 문화예술향유 취약계층 시민의 문화예술 복지 증진
 -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사전 공연 준비 등 필요

다.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기관 개요

1) 소재지 :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5

2) 규 모 : 대지 21,083㎡, 건물 64,066㎡(지하 3층, 지상 6층)

- 공연장(세종대극장, M씨어터, 체임버홀, S씨어터), 전시관(세종미술관, 세종충무공이야기), 교육시설(세종예술아카데미) 등

4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주우철)

가. 동의안의 개요

- 동의안은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세종문화회관 출연금을 편성하기에 앞서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서울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음.

나. 출연의 규모 및 필요성

- 2023년 세종문화회관의 기정출연금은 412억 6천 8백만원이며, 이번 동의안을 통해 증액하고자 하는 출연금의 규모는 1억 6천만원임.

< 세종문화회관 추가경정예산안(안) 편성현황 >

(단위 : 천원)

구분	추경예산(안)	기정예산	증감액	증감율
계	41,427,808	41,267,508	160,300	0.4%
세종문화회관 출연금	41,427,808	41,267,508	160,300	0.4%

-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세종문화회관이 편성하고자 하는 사업은 ▶ ‘예술로, 동행’ 확대 운영에 3천 9백만원 ▶ ‘천원의 행복’ 확대 운영 1억 2천 1백만원 등 총 2개 사업, 1억 6천만원으로 시민공연 분야의 예산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임.
- 세종문화회관은 서울형 생활문화 구현과 취약계층을 위한 문화예술 복지 증진 등을 근거로 추경 편성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모두 본 예산에

반영되었어야 할 사업들로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하는 추경 편성 요건¹⁾에 비추어 볼 때 시급성은 부족해 보임.

- 또한 두 사업 모두 22년에도 추경 편성을 통해 예산을 늘려왔으며 올해 역시 추경 편성을 통해 공연관람 기회를 늘리려는 바, 이는 세종문화회관이 사전에 세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과 예산을 편성하기보다는 시장 역점 및 시책의 변화에 따라 사업과 예산을 수립하고 있다고 판단됨.
- 다만 이번 추경을 통하여 경제적 부담으로 자유로운 문화향유가 어려운 ‘문화약자’인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기회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출연의 필요성 인정됨.

다. 세부사업별 검토

1) ‘예술로 동행’ 확대 운영

- 나눔연계공연 중 ‘예술로 동행’ 사업은 2016년부터 자치구 문화역량 강화를 목표로 서울시 예술단이 자치구와 약자 관련 시설(복지관, 병의원)로 직접 방문해서 공연을 펼치는 사회공헌사업으로 3천 9백만원이 추경안에 편성되었음.
- 특히 올해 약자 관련 시설 대상을 확대(노숙자 시설, 쪽방촌 거주자, 보육원)하고 자치구 공연에서도 총객석의 10%를 약자동행석으로 설정함과 동시에

1)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(자연재난과 사회재난), 경기침체, 대량실업, 남북관계의 변화,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·외 여건 변화 등

기존 서울시예술단 중심의 공연에서 다양한 장르에서 검증된 예술단체들을 섭외하는 방식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하였음.

- 이 사업은 추경을 통하여 기존 7회였던 자치구 공연을 2회 더 확대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2회 확대된 공연은 문화본부 문화진흥과의 요청에 따라 10.29. 참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용산구민을 위한 ‘위로와 희망 음악회(3.28.자, 4.7.자)로 기 개최하였음.
- 이처럼 이미 진행한 공연에 대하여 추경 편성을 통해 그 부족분을 메우는 것은 당초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추경 편성의 당위성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.
- 다만 문화공연을 통하여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치유의 시간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선제 대응 성격의 행사 취지에는 동감하는바, 앞으로 문화본부와 세종문화회관은 사업운영 시 사업의 시급성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본질에 맞춰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임.

2) ‘천원의 행복’ 확대 운영

- ‘천원의 행복’은 세종문화회관의 대표 사회공헌사업으로 공연관람이 어려운 계층을 위해 천원의 관람료로 양질의 공연을 제공하는 사업이며, 1억 2천 1백만원이 추경안에 편성되었음.
- 올해는 특히 민선8기 시장 공약사항인 서울시 ‘약자와의 동행’ 정책의 하나로 자립청소년이나 어린이, 노년층 등 문화·사회소외계층을 위한

‘행복나눔석’ 을 전석으로 확대 운영하는 공연을 4회 기획하였음.

- 이 사업은 ‘예술로 동행’ 과 마찬가지로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경 예산을 통해 기존 1회였던 대극장 공연을 6회로 확대하고 대극장 3층 관람객을 위한 실황 모니터 임차비용이 반영되어 있음.

< 2023년도 ‘천원의 행복’ 공연 계획 >

(단위 : 천원)

연번	개최월	공연명	건(횟)수	사업비(지출)
합계			10/16	500,000
1	3월	해설이 있는 <고잉 온 콘서트> ※ 올림푸스한국 후원/암경험자 지지를 위한 공연	1/1	13,860
2	4월	해설이 있는 <봄밤의 클래식 카페> ※ 엄마야빠행복프로젝트	1/1	17,180
3	5월	빨간 코 광대야 놀자! <더 클라운> ※ 아동어린이 대상 1회차 전석 행복나눔석 운영	1/2	48,680
4	7월	너를 응원해! <선우정아x10CM> ※ 자립청소년 대상	1/1	60,240
5	8월	S-Classic Week ※ 신한은행 후원/신한음악상 수상자와 함께하는 공연	1/4	7,960
6	8월	해설이 있는 <한여름 밤의 영화와 클래식>	1/1	65,750
7	9월	해설이 있는 <발레 갈라> ※ 문화소외계층 대상 1회차 전석 행복나눔석 운영	1/2	62,630
8	10월	얼씨구나~ 흥이 난다! <김성녀의 마당놀이> ※ 노년층 대상 1회차 전석 행복나눔석 운영	1/2	68,000
9	10월	<나눔 콘서트>	1/1	76,700
10	11월	해설이 있는 <뮤지컬 갈라 콘서트>	1/1	79,000

- 세종문화회관은 연간 공연계획을 통해 아동어린이, 자립청소년, 문화소외 계층, 노년층 등 다양한 ‘문화약자’ 를 포함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문화적 지원을 수행하고, 기획 단계부터 온라인 송출을 고려함으로써 문화예술 활동의 디지털화 확산에 대응하는 등 사회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사업이라 할 수 있음.

- 재단은 2007년부터 진행된 동 사업이 다른 극장들과는 차별화된 사업으로 지속·발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내부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천만 서울시민의 문화향유 기회가 더욱 증대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임.
- 서울문화재단이 발표한 ‘2023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(2022년 기준)’에 따르면 공연·전시 등 문화예술 관람 수요가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문화예술 관람기회를 확대하려는 본 추경안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수 있음.